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시편 144:1-15)

People who make the Lord their God (Psalm 144:1-15)

루터는 참 종교란 개인적 선언에서 찾아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요 20:28).

본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Martin Luther said that true religion can be found in an individual's declaration. The fact that we can confess the Lord as my God and Jesus as my Lord is quite different from simply having dogmatic knowledge. Even Thomas fell upon his face before Christ who had risen from the dead and confessed, "My Lord and my God!" (John 20:28).

In this psalm, David said, "The Lord is my rock," "my love," "my fortress," "my stronghold," and "my shield." He also concluded, "Blessed are the people of whom this is true: blessed are the people whose God is the Lord."

1. 승리에 대한 왕의 감사(1-4절)

다윗은 모든 힘을 다하여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능력 주시는 분을 알고, 그 분께 영광을 돌릴 때 악을 이기고 진리를 방어하며 그릇된 것을 정복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이시고 방패이시며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막중한 은총을 입기에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3절). 그러기에 그의 감사는 더욱 떨렸고 우리가 받는 감동은 더욱 깊은 것입니다.

1. The king's thanksgiving for victory (vv. 1-4)

David praised God, his rock, the best he could. Since he knew that God gave him the ability to glorify Him, he also knew that he would receive the ability to defeat the evil, defend truth, and overcome falseness. Although David was a king, he knew that he was weak and insufficient in himself. Nevertheless, he was not afraid of anything, because he believed that God was his rock, his shield, and his love. However, David realized how valued he must have been that he receive God's great grace (v. 3). Therefore, He gave thanks to God with fear and trembling.

2.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도우소서(5-11절).

다윗이 싸우는 적은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특징은 불신실, 즉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적들로부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강림하셨듯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 하셨듯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자신에게도 간섭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특히 죄의 형벌과 권세로부터 구원해주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열 줄 비파로 찬양했습니다. 마음에 새로운 감사의 열정을 주셨으니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2. Help those who are in the midst of suffering (vv. 5-11)!

The enemy that David fought against were Gentiles. Their distinctive feature was unfaithfulness, lying, and deceitful conduct.

Just as God came down to give Moses the whole law, led Joshua against their enemies, took possession of the land of Canaan, and rescued the Israelites out of Egypt, the psalmist prayed that God should intervene and rescue him from his enemies. He sang a new song and made music to God on his ten-stringed lyre. This God is also our God, who has delivered us from the penalty and power of sin. Because a new passion for God overcame his mind, he needed to praise the Lord with a new song.

3. 국가와 민족을 위한 왕의 축원(12-15절).

12-14절을 통해 다윗은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후 왕으로서 기필코 실현해야 할 이상적 국가, 곧 청소년층이 건전해야 하고(12절), 산업이 창성해야 하며(13절), 평화가 정착 되고 사회 정의가 확립된(14절) 국가상을 보여줍니다.

3. The king's invocation for the nation and the people (vv. 12-15)

In vv. 12-15, after God had delivered and rescued the nation and the people from crisis, David expressed as a king how the nation should be put into practice, how the younger generation should be sound (v. 12), how the industry should be prosperous (13), how peace should be brought about, and how social justice should be established.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끗한 가정, 풍부한 산업, 평화 정착, 정의 확립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는 것은 모든 복 중 최고의 복입니다.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복 있는 백성,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국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Conclusion

The blessed live by giving thanks to God. Moreover, they entreat God to help them in the midst of their sufferings. It is possible for a nation which makes the Lord their God to establish a clean family, abundant industry, and peace and justice. Therefore, the people who take the Lord as their God will have the greatest blessing of all blessings.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10 흥해작전 개전

6월 06일~12일 송용원 목사
6월 13일~19일 조진모 목사
6월 20일~25일 오덕교 목사

2010년 흥해작전(참모장 이관규 장로) 승전을 위한 행진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요 8:29, 시 37:4)를 주제로 6월 25일(금)까지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20일간 진행 되는 이 특별새벽기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해라는 커다란 장애와 시련앞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한 기적의 역사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들의 고난과 고민을 기도하며 응답받는 은혜로운 시간이다.

특히 이번 흥해작전 주력부대는 본당 피아노 앞쪽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바란다. 또한 흥해작전을 기념하여 아가페타운(사진) 퍼즐을 만들어 개근한 성도들에게 액자를 선물로 드리며, 전교인을 대상으로 사행시(흥/해/작/전)를 공모한다. 교육1국에서는 백일장을 개최하여 사행시와 함께 우수작품을 시상한다. 흥해작전 기간 중 받은 은혜를 온 성도와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신앙간증문을 교구 지도 목사에게 제출하면 순례자에 게재하게 된다.

흥해앞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구원을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 이번 흥해작전에 참석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2010년 흥해작전 첫번째 주 본문과 제목

- 6월 6일(주) :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요한복음 2장 1-11절)
- 6월 7일(월) : 폭풍 속의 주님 (요한복음 6장 16-21절)
- 6월 8일(화) :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8장 51-59절)
- 6월 9일(수) :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요한복음 21장 1-6절)
- 6월 10일(목) : 양의 목자,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1-10절)
- 6월 11일(금) :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17절)
- 6월 12일(토)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



아가페타운퍼즐



도서실 신간안내

『웨스트민스터 역사와 신학』

웨스트민스터 역사와 신학을 필그림 출판사에서 신국판 483면으로 웨스트민스터 한국총동문회(회장 이종운)가 출판했다. 20세기 초 신학의 변혁기에 성경적 복음을 고수하고 이를 입증한 웨스트민스터 초창기 교수들에 대한 연구논문집으로 오늘날 신학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큰 지침을 주고 있다. WTC신학과 한국교회에 대한 4편의 논문과 11편의 정통신학자들에 대한 논문으로 구성된 이책은 우리교회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 20,000원)

에딘버러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기념 한국대회

6월 22일(화)~24일(목) 서울교회 및 장신대에서
6월 22일(화) 오후 5시 개회 예배 서울교회 본당

에딘버러 세계선교사 대회 100주년기념 한국대회가 6월 22일(화)~24일(목)까지 서울교회 및 장신대에서 열린다.

이번 에딘버러 세계선교사 대회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대회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선교학회, 복음주의 선교학회,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한국로잔위원회, 김치(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CWM(Center for World Mission)과 한국기독교학술원이 한국연합 선교회(Korean Association of Mission)를 구성, 주관하여 에딘버러 세계선교사 100주년 기념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100년 전 1910년 에딘버러세계선교대회 당시 국내 기독교인은 1%도 안되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2만 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대국으로 성장하였고, 100년전 당시 중심지였던 에딘버러는 현재 선

교 인력, 재정, 열정을 잃어버렸으며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수있는 여력조차 없다. 에딘버러 선교사대회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 100년동안 세계선교의 흔적을 더듬어 보고 잘한 것은 칭찬과 박수를 보내고 잘못된 것은 고치며 회개와 새로운 시작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지난 100년의 세계선교를 회고하고 다음 100년의 선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100명의 선교학자들이 10개의 분야로 나뉘어서 100개의 선교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내일의 선교를 준비하고, 지혜롭고 책임있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교회에서는 22일(화) 오후 5시 본당과 8층 만나홀에서 개회예배 및 환영행사가 열리고 이후 24일까지 모든 행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서울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6월 25일~27일까지 인천대회로, 7월 4일부터 5일까지 부산대회로 각각 열린다.

한국기독교 원로목사회 정기모임 초청

우리교회는 한국교회 원로목사님들의 2010년 2차 정기모임을 6월 17일(목) 본당에서 갖고, 위회회를 801호 만나홀에서 열기로 하였다.

중고등부 연합찬양팀 제23회 기독교학생 찬양대회 대상 수상

지난 5월 29일 서울강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 제 23회 기독교학생 찬양대회에서 서울교회 중고등부 연합찬양팀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부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은 아가페타운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으며 금일 찬양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전도학교 38기 개강

전도학교 38기가 6월 6일(오늘) 오후 1시 50분 903호에서 개강한다.

전도학교는 12주만에 걸쳐 교실강의와 현장실습, 그리고 주간학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양육훈련 과정이다.

한편, 37기 수료자는 다음과 같다.

구연복 김경숙4 김정제 나영숙 서해숙 안명심 유묘종 이수련 이승자1 이상선 전현주 정미애 지성철 최성희1 추현숙 한민아 (총 16명)



◀ 한국로잔(11차) 6월 월례모임에서 "종교개혁의 개혁: 청교도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특강하는 수잔 아드만 무어 박사(에딘버러대 교수/우측)

금주의 성구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엡5:33)

However, each one of you also must love his wife as he loves himself, and the wife must respect her husband. (EPHESIANS 5:33)

호국의달 특별기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갑진 장로
(비전2020운동 위원장)

올해는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목표로 1950년 6월25일 김일성 집단의 남침으로 저질러진 이 전쟁에는 저들의 야욕을 꺾게 만들었던 세 가지의 미스터리가 있다.

첫 번째는 김일성이 서울을 점령하고 사흘을 머물렀던 일이다. 우리에게 시간을 벌게 해 준 것이다. 만약 당시 두 개 밖에 없었던 한강 대교와 광진교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탱크를 앞세워 쉬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였다면 아마도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겨를도 없이 부산까지 함락되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트루먼 대통령의 신속한 미군투입 결정이다. 그는 전쟁 발발 보고를 받은 즉시 그의 직권으로 동경의 맥아더 장군에게 가용한 병력을 가장 신속하게 한국전선으로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일성은 미군의 참전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 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맥아더 장군은 이를 뒤인 6월27일 일본에서 수원

으로 날아와, 흑석동 한강변에서 공산군에 의해 함락되고 있는 서울을 바라보며 장차 전쟁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세 번째는 유엔군의 파병이다.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비토권을 가진 러시아 말리크 외상의 불참으로 안보리는 유엔군의 한국파병을 반대 없이 결의함으로써 김일성 공산집단의 남침을 유엔의 이름으로 응징하게 된 것이다. 21개국(전투파병 16개국, 병원선 5개국)의 참전용사들이 이 땅과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희생 하였다.

나라를 위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러나 이 미스터리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미스터리가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삼상 17:47)

개전 당시의 군사전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열세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이르게 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곧 미스터리로 나타난 것이다.

후일 미국을 방문한 어느 한국군 장군이 트루먼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그런 빠른 파병을 결정할 수 있었는가 물었다. 그의 대답은 "I don't know." 그러면서 그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트루먼의 간증이라 믿는다.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지구상의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전쟁을 잠시 멈춘 휴전의 상태에 있다.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의 피침이 북한의 짓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본인은 평택 2함대를 방문하여 갈기갈기 찢겨지고 구부러진 천안함의 선체를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천안함 사건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자.



안보불감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경종을 치신 것이다. 진실을 호도하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바리새인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경고를 하신 것이다. 김정일 집단의 전쟁위협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 맞서라고 격려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할 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홍해작전을 시작하며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입니다



홍승전 집사(홍해작전 본부 차장)

하나님께서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홍해작전 개전(開戰)을 서울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울교회 성도들 남자, 여자, 그리고 늙은이, 젊은이 모두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빠

짐없이 조국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를 건너야만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군대에 나가는 군인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간다면 백전백패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오른손에는 우리 앞의 홍해를 반드시 건너겠다는 믿음을, 왼손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야길 19년, 서울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길고 긴 광야길을 즐겁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서울교회를 지금껏 부흥 발전케 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향한 선교와 교회 섬김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교회당 설립과 아가페타운 건설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 하셨습니다.

드디어 19번째 홍해가 우리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거의 두 번이나 변하는 긴 세월 동안 정말 우리 개개인 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는지 반성해 봅니다.

그동안 준비되지 않은 전장의 오합지졸 군사처럼 홍해작전을 수동적으로 맞이했다면 올해는 분명 준비된 하나님의 자랑스런 용감

한 군사가 되어겠습니다. 홍해작전 7가지 기도제목을 가슴에 안고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오는 25일 홍해작전 승전감사 예배에 우리 모두 승전가를 부릅시다.

나의 하나님

열린 문으로

윤영남 권사(10교구) 시인

문명이 되는 사람
당신을 만나면
저절로 빗장이 풀리고
향기롭게 열리는 신천지

힘력이 되는 사람
당신을 만나면
걸림돌이 디딤돌 되듯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길들이 되는 사람
당신을 만나면
두 눈 감아도 열린 문으로
지금 다가오는 찬란한 성상聖像



우리 고구 풍해를 이렇게 건넌다

홍해작전에 승리하는 11교구

김광룡집사
(11교구 간사)

2010년 한 해를 시작한지 반년이 되어가는 시기에 지난 날을 되짚어 보고 우리 앞을 가로 막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2010 홍해작전입니다. 6월6일부터 시작하는 홍해작전에 11교구 식구들은 각오가 새롭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에굽을 탈출할 때 기도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도록 했듯이 우리 11교구도 새벽을 깨워 우리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 받고자 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자녀와 내 자



신 부족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문제까지 2010 서울교회 홍해작전에 승리하는 11교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사로 오시는 세 분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속에

놓여있는 홍해부터 기도로 가르고 건너고자 합니다.

다락방별로 새벽 4시에 모닝콜을 설정하고 서로 연락하며 서둘러 교회를 향해 오는 길에 카풀작전을 전개합니다. 섬김의 자세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서울교회로 달려가겠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5월 교구찬양대회에서 보여주었던 11교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 20

만민에게 전도 - 농촌전도

신앙 회복의 계기

이양철 집사(11교구)

지난 5월 21일은 유난히 덥지 않았나요? 농촌전도의 열기(?)가 한몫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베드로선교회, 비비전도회, 이·미용 선교

회 회원 38명이 강원도 인제 서흥교회로 농촌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모든 일정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휴일이라서 평소에는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5시간 반이나 걸려서 도착하여 찬양과 자기소개 신앙간증 등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서흥교회 김광근 목사님의 인도와 설교로 개회 예배를 드림으로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군부대 이발팀, 동네 할매니 할아버지 이·미용팀, 한방팀, 안과진료팀, 도배1팀, 도배2팀 등으로 나뉘어서 38명의 대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의 위치에서 부지런히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본연의 임무인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원들 한사람 한사람 수고하고 땀흘리는 그 모습은 천사의 모습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6순을 훌쩍 넘기신 권사님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몇 달치 손님이 한꺼번에 찾아왔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시면서 아쉬워 하시는 서흥교회 김광근 목사님과 성도들을 뒤로 하면서 저녁 7시에 다시 서울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치 않았다면 과연 어디에 갔을까?" 생각 해 보니 이보다 더 은혜로운 곳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 되었습니다.

돌아켜 보면 받은 은혜가 훨씬 많았습니다. 농촌교회 봉사를 통하여 농촌교회도 살리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 10시 반에야 서울교회에 도착 하였지만 대원들의 모습은 한없이 기쁜 모습이었고 내년에도 참석하겠다는 소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5교구(지휘/오정녀 집사, 반주/홍혜란 성도)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Don Besig)'찬양과 시온 찬양대(지휘/백경화 집사, 오르간/이순재성도, 피아노/서유진성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시온찬양대는 "오직 믿음(Sola Fide)"을 테마로 하여 'Gloria(John Rutter)'의 두곡을 드린다. 팀파니는 박광서집사, 타악기는 윤주일성도, 차임은 홍혜란성도가 수고하며 중 고등부 연합찬양 팀도 함께 찬양드린다.

일 동안 새벽마다 출석하여 아가페타운 전경 퍼즐을 다 맞춰 나가는 식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2010 홍해작전을 승리로 이끌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1교구 식구들이 되고자 기도합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0일(목) 한창중 임원회 및 상임위원장 연석 회의를 소집한다. 11일(금)에던버러 선교사 대회 100주년 기념 한국대회 기자회견을 한다.

■ 개업: 강지우 성도(14교구) 여유(건강식품 판매) 남부터미날내 국제전자상가 010-8288-1698

■ 수상: 정승락 성도(사랑부 교사) 제3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보치아선수권대회 겸 제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서울선발전 은상 수상

■ 귀국 하프독주회: 윤희정 성도(4교구 권혁달 집사, 이수경 권사 자부) 6월9일(수) 오후8시 광화문 금호아트홀

■ 주간식당봉사: 바울선교회(6.6) 엘리야전도회(6.13)

■ 금주의 식사: 안인선 집사 강혜진 집사 가정 (셋째 자녀 첫 생일 감사하며) 조성일 집사 강창숙 집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위해.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말씀과 기도로 홍해를 가르는 홍해작전 위하여
4.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북핵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